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크라테스 :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식을 탐내고 방탕하고 술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귀나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부정이나 독재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리나 독수리나 술개가 될 거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케베스 : 이러한 의견은 매우 그럴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거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제와 정의라고 불리며, 철학이나 이성 없이도 습관에 의해 획득되는 국민의 사회적 덕을 실천해 온 사람들이야.

케베스 : 왜 그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소크라테스 : 그들은 꿀벌이든가 장수말벌이나 개미처럼 그들 자신과 비슷한 온화하고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으며, 올바르게 절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케베스 :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 철학을 연구하지 않고 출발 시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오직 애지자(愛知者)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 받네. 그리고 이것이 철학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든 육체적 정욕을 삼가고 육체적 정욕을 극복하며, 육체적 정욕에 빠지지 않는 이유일세.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가난해지거나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며, 또한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나쁜 행위 때문에 불명예나 악평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네. 육체를 돌보고 키우는 데만 골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돌보아 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과 작별을 하는 거야. 그들은 장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철학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돌아서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케베스 :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에 속박되고 갇혀 있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철학이 그의 영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자기 자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네. 영혼은 온갖 무지의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육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박하는 공범자가 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영혼의 본래의 상태였네. 그렇지만 철학은 영혼이 영혼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고 영혼을 받아들여 점잖게 달래고, 눈과 귀와 기타의 감각은 기만으로 가득차 있음을 지적해줌으로써, 또한 이러한 감각들로부터 물러나서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감각의 사용을 삼가며 영혼을 집중시키고 가다듬도록 설득함으로써, 영혼 자신과 순수한 존재에 대한 영혼 자신의 순수한 파악만을 신뢰하도록 권함으로써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이 스스로의 본성을 통해 보는 것은 예지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참된 철학자의 영혼은 이러한 해방에 거슬러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가능한 한, 쾌락과 욕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인간이 큰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욕망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를 입는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해악 — 예컨대 육욕 때문에 희생된 건강이나 재산의 상실 따위 — 일뿐 아니라, 훨씬 더 큰 해악, 가장 크고 가장 나쁜 해악이며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해악이야.

케베스 : 소크라테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가장 강렬할 때, 어느 누구의 영혼이나 이 강렬한 감정의 대상을 가장 명백하고 가장 참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해악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대상들은 가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발췌·수정-

<나>

불교와 금욕주의 철학에서는 ‘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가르친다. 즉, 행복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끊음으로써 오직 내면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불교도와 금욕주의자도 관계와 직업, 또는 소유물을 지닐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잃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그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석가모니가 초연한 태도를 강조한 이유는 그가 살았던 격변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당시 왕들과 도시국가들은 서로 치고받으며 한창 칼부림 중이었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다. 만약 삶이 로마 황제들의 번덕에 휘둘렸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경우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하다면, 자신의 외부세계를 통제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부유한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질병에 면역이 되어 있으며, 폭풍우를 피할 곳이 있고, 화재, 절도, 그리고 충돌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유한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은 70년 넘게 장수하며 세상 구경을 하고,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불의의 재난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재난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자신이 더 성숙해졌다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삶에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얼마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각적인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애써 외면하고 모든 집착을 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도 질병, 노화, 죽음 등 석가모니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현실을 목도했지만, 석가모니와는 아주 판이한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고 목표나 즐거움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인생을 최대한 만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감정을 주제로 글을 쓰는 대표적인 철학자인 로버트 솔로몬(Robert Solomon)에게서 이런 의침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무집착의 철학을 인간성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이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 그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이 옹호한 지적인 사색과 감정적인 부동심의 삶, 석가모니가 주장한 차분한 무위의 삶은 모두 열정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삶의 방식인데, 열정 없는 삶은 사실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너선 헤이트, 『행복의 가설』에서 발췌·수정-

<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많은 부자들은 자기 소유물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목표가 주로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도 결국 소유물의 관리인 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물질주의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불행은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일류 대학의 신입생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18살이었던 1976년에 태도조사를 하고 37살이 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신입생이었을 때 물질적인 포부를 밝혔던 학생들,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일차 목표라고 했던 학생들은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에 덜 만족하고 있었다. 나아가 물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각종 정신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물질주의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던 금전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서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현재를 즐기고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는 활동이 물질주의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이 자신의 삶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더 많으면’ 삶의 질이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967년 이후로 미국 전역의 대학 신입생들의 태도와 장래 계획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신입생 조사(American Freshman Survey)’라고 불리는 연례 연구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5년에는 385개 대학의 263,710명의 학생이 조사에 응했다. 이 조사에서는 1967년의 42퍼센트와 비교해서 기록적으로 높은 비율인 71퍼센트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흥미롭게도 현재 신입생의 52퍼센트만이 ‘의미 있는 인생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나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1967년에는 87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었다. 경제적 풍요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힌 신입생들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될 것이다. 연봉이 3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5만 달러를 벌면 감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25만 달러는 벌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부자들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792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부가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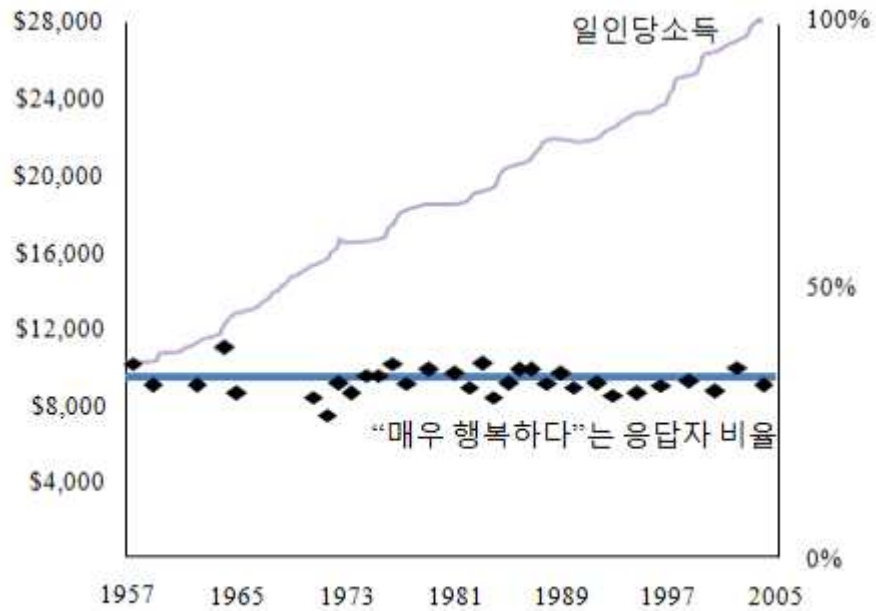
-소냐 류보머스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발췌·수정-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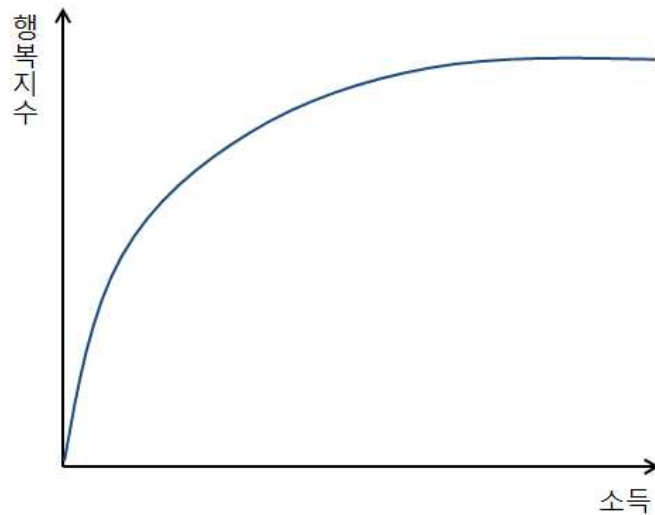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는 미국인들의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된 미국인 일인당 소득은 1957년에 9,000달러 정도였고, 2005년에는 28,000달러 정도였다. 한편,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1957년에 약 35퍼센트였고, 2005년에는 약 34퍼센트였다.



-데이비드 마이어스, 『사회심리학』에서 발췌·수정-

<마>

아래 그래프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른다.



-에드 디너 등, 『한국에서의 불행 : 왜 높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서 발췌·수정-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할수록 부유층과 빈곤층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층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이러한 보장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개념이 최저생계비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는 생물학적인 생존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창조·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에서 발췌·수정-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의 조사결과들이 함의하는 바를 논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다>, <라>, <마>를 종합하여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고, <바>의 내용을 <마>와 연결 지어 논하시오. (1000자 내외)

인문계(2교시) 논술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인문계 2교시 논술고사는 행복과 행복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10여 년 전부터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가 미디어, 광고, 산업계 등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심신의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처럼 삶의 질,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행복을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본 논술고사에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및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적 관점에서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고찰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반부에는 ‘행복의 원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개진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후반부에는 ‘부(富)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었던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관찰된 결과를 글과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생활 보장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물질적 조건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논하도록 하였다.

상술하면, 본 논술고사의 첫 번째 문항에서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둘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연구들에서 관찰된 결과가 물질적 풍요는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 연구결과들은 유덕(有德)한 삶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는 관점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소득과 행복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즉, 소득수준이 최하위권인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나,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른 이후에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 통합 및 그 함의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토대로,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득력 있게 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이상의 문제를 통하여 본 논술고사에서는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설득력 및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발췌·수정한 글이다. 저자는 대화문의 형식을 통해 행복이란 유덕한(덕이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의 원천이 되는 유덕한 생활이란 무욕(無慾)과 절제를 전제로 올바른 습관과 훈련을 통해 인격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감성적인 향락, 부귀나 명예 등의 외적 조건 등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요컨대, 저자는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행복은 육체적인 정욕을 삼가고 영혼의 순수함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조너선 헤이트의 『행복의 가설』에서 발췌·수정한 글이다. 저자는 불교와 금욕주의 철학에서 외적인 집착을 끊고 오직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안녕(安寧)이 보장된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이와는 다른 행복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인생을 최대한 만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소냐 류보머스키의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발췌·수정한 글이다. 이 글은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① 1976년에 18살이었던 대학 신입생 1만 2천명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일차 목표라고 응답하였던 학생들은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에 덜 만족하고 있었다.
- ② 1967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미국 신입생 조사(American Freshman Survey)’의 결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1967년에는 42퍼센트였으나 2005년에는 71퍼센트로 증가하였다. 반면, ‘의미 있는 인생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1967년에는 87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52퍼센트로 감소하였다. 792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부가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라>는 미국인들의 소득수준과 행복감에 관한 종단(longitudinal)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 같이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소득수준이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사람들의 행복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마>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소득수준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른 후에는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련성이 약해진다. 즉, 소득의 증가에 따라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제시문 <바>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사회 보장 및 사회복지의 의무에 관한 글이다. 국가는 헌법질서 안에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정신 상태로서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는 그 기준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최저생계비는 생물학적인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문제 해설

[문제 1]

1번 문제는 행복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의 조사결과들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행복이란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이며,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는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문 <나>에서는 외적인 집착을 끊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행복관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복의 추구가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문 <다>에서는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물질, 특히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이 제시문 <다>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

2번 문제는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설득력 및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마>에 따르면 소득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른 후에는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련성이 약해진다(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편, <라>는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소득수준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사람들의 행복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이른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소득수준의 변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위 <마>와 <라>의 요지를 종합해 보면 소득과 행복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에서 제시된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함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들도 이러한 결론에 부합한다.

<바>의 논지는 국가가 국민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의 내용 중 소득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한다는 부분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바>의 논지가 타당하다는 근거가 된다.